

## 새로운 방향 의식의 자각

70년대에 접어들면서 유난히 떠들썩하던 새 바람도 지난 해 동안 별로 두드러진 무엇을 보여주지 못하고 지나버린 감이 있다. 그러나 사건으로서 이렇다 할 문제가 없기는 했지만 어떤 새로운 방향 의식과 자각이 교계 안에서 서서히 일기 시작한 것을 느끼게 된다. 첫째로는 세계 교회의 눈이 한국 교회에 쬐 호의적으로 쏠리기 시작했다는 것이다. 금년만 해도 한국을 다녀간 인사들이 헤아릴 수 없으리만큼 많다. WCC총무 블레이크 박사를 위시해서 유럽 교회 지도자들이 마치 옆집에 드나들 듯이 방문해 왔다. 분명히 한국 교회는 고독한 교회가 아니라 세계 교회와 서로 깊은 친교를 두텁게 해 나가는 교회임을 알게 되었다. 미국과의 교류만을 생각해 오던 우리는 이제 독일, 영국, 화란 그리고 동남아 여러 나라 교회와도 깊은 유대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연합 사업의 큰 성과라고 하겠다.

둘째로는 우리의 선교 의식이 과거보다 훨씬 개화되는 동시에 자기 심화의 코오스를 달리고 있다고 본다. 선교의 개념 자체가 일년 전의 <신의 선교>협의회 이후에 더 폭넓게 이해되어져 가고 있다는 말이다. 예를 들면 과거에는 선교를 좁은 의미의 <전도>라고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형식이나 내용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다. 다방을 중심으로한 코이노이니아 선교, 학생들이 중심이 된 <학사원> 운동,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 선교, 여성 활동, 경찰, 군대, 예비군에 대한 목회자 파송, 그밖에 세진회, 신평회, 사회 개발 동지회 같은 젊은 교역자들의 사회 참여를 위한 새로운 자아 의식

이 여기 저기에서 볼 수있는 새바람이다.

이러한 새로운 추세에도 어떤 이념적인 뒷받침이 있어야만 했다. 단순한 새바람은 결코 아닐 것이다. 금년에 우리가 주로 다룬 <발전>문제는 경제적인 성장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인간, 사회의 발전 문제라고 하는데 핵심이 있었다. 그러기 위해 카톨릭과의 제휴로 Sodepax 를 조직하고 거종교적인 인간 사회 개발에의 참여를 제창했던 것이다. 인간과 사회의 발전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<인간화>의 프로세스이다. 아카데미에서 열렸던 인간화 타구는 이 점을 놓고 다루어진 중대한 행사였다. 인간화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아카데미 운동에 큰 자극을 준 것이 전태일 사건이었을 것이다. 이것은 우연의 일치라기 보다 우리가 하는 일이 공론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<액션>이 따라야 된다는 하나의 역사적인 도전이기도 할 것이다. 이러한 이념적인 뒷받침으로서 대체로 어떤 방향을 모색한 한국 교회는 앞날의 이 사회 국가의 구원을 <사회 정의> <자유> 그리고 <자립>이라는 몇가지 점에다가 집약시켜서 구현해야 할 것 같다. 이 <이데오르기>에 대해서 공동 관심을 가지는 교파들 사이에서만 진정한 대화, 일치의 가능성을 내다 볼 수가 있을 것이다.

그러나 이러한 일에는 여러가지 애로가 따를 것은 분명하다. 이러한 난관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노력으로 기력을 회복한 사실을 기독교 방송국에서 찾아볼 수 있다. 침체 속에서 새 활로를 찾은 것이다. YM, YW 활동은 역시 우리 사회 안에서는 무어라 말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닌 만남의 장소이다. 대체로 한국의 연합 사업은 불가능 중에서 가능성을 추구하려는 집념에 사로잡힌 사람들로써 유지되어가고 있다. 성서공회는 새 건축을 완성하고 새 출발을 했으며 기

독교 사회는 새 건물 건축을 앞에 두고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. 지난 일년 중에 우리가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것은 <블레이크>박사 내한시에 물지각한 사람들의 망발, 그리고 통일교 문제 때문에 잠시 발생이 있었던 종교 협의회와의 관계 문제,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파생된 Sodepax 활동의 연기 등을 들 수 있다. 끝으로 1970년 7월에 도오포에서 열렸던 아시아 개발 협의회와 1971년 12월에 아카데미에서 모인 한 미 교회 협의회는 우리가 바라는 앞날에 새로운 과제를 보여 주는 역사적인 행사였으며 이것이 앞으로 계속 추구해야 할 교회의 책임적인 선교의 과제여야 할 것이다.